



《조선 최대 갑부 역관》 낸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  
미래를 알고자 하면  
지난 일을 살펴보라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에 토대를 두고 변화·발전시켜 새 것을 만들어 가는, 그러나 근본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시대 대표적인 역사저술가로 자리매김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인 듯하다. 1997년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를 시작으로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조선왕 독살사건》 등을 펴내며 조선시대 미스터리들을 풀어냈고, 《정약옹과 그의 형제들》 《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을 통해 역사 속에 안타깝게 묻혀버린 인물을 복원해 냈던 그가, 중언으로서 조선 사회를 움직였던 '역관'에 주목하고 나섰다.

새롭게 밝혀지는 역관의 면모

《조선 최고 갑부 역관》(이하 《역관》)은 조선시대 막후에서 막대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역관, 즉 통역관들의 행적에 주목한다. 최근 붓물 터지듯 출간되고 있는 많은 역사서들이 왕과 궁중, 양반 사대부들의 이야기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역관》은 신분적 한계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중인 역관의 시대적 역할에 천착하고 있다.

“역사의 기록은 늘 승자(勝者)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승리자의 역사의식과 기록이 당대의 일관된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항상 반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서술하는 입장에서 패자(敗者)의 자리에서 서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록물을 패자의 입장에서 투영해 보고 다시금 역사를 기록하는 게 제 역할이죠.”

패자의 역사를 새롭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품이 많이 든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있다 해도 단편적인 조각글들이 전부였다. 그래서 이 소장은 '역관'이라는 단어가 나온 문헌이라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책장을 넘겼다.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승정원일기》 《통문관지》 《부연일기》 《열화일기》 《성호사설》 《연려실기술》 등 수많은 사료를 꼼꼼하게 읽고 자신의 관점을 덧입혀 탄생한 것이 바로 《역관》이다.

당연히, 우리가 몰랐던 중인 역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이 책에 기술된 역관의 새로운 이면, 즉 외교관, 무기수입상, 첩보원, 개화사상가, 독립운동가 등은 중·고등학교 국사시간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역관들의 면모임에 틀림없다. 이 소장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대부들이 외교 현장에서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다면, 역관들은 조선이 챙길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목적 달성에 충실하게 복무한 애국자로 평가해도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숙종 38년, 청나라 사신과 국경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접반사 박권과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는 “길이 험하고 나이가 많으니 기다리라”는 청나라 사신의 말 한마디에 국경 분쟁 지역에는 가보지도 않았다. 청나라 사신을 분쟁지역에서 만나 조선의 이익을 지켜낸 것은 역관 김지남과 그의 아들 김경문이었다. 그렇게 생긴 것이 바

로 백두산정계비이다.

### 개화선각자,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관 기문

역관은 조선시대 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이덕일 소장의 말을 들어보자.

“학식도 어느 정도 있고, 경제력도 국제무역을 통해 다졌고 양반들에 대한 피해의식도 있으니 당연히 현실 정치에 대한 욕구가 생긴 거죠. 그러니 장희빈 같은 유명한 역관 집안은 환국정국에 자금줄 역할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 만큼 조선의 정치구조가 모순적이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막후 실세 노릇을 했던 역관들 대부분이 이용만 당하고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소장은 덧붙였다.

역관들이 했던 수많은 역할 중에서 이덕일 소장이 궁극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개화 선각자로서의 역관의 역할이다. 해외를 다니다보니 그 누구보다 먼저 변화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었고, 양반 사대부들보다 많은 재산과 식견을 가졌음에도 신분 상승의 좌절을 겪자 새로운 사상이나 체제를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경석이었다. 아편전쟁으로 겪은 중국의 어수선한 모습과 서구 열강의 힘을 알게 된 그는 조선도 서구 열강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을 간파했다. 오경석은 고종 8년 미국이 대통령 국서로 수호통상조약과 개항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것을 대원군에게 진언했다. 하지만 대원군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후 타율적인 개국을 맞은 조선에서 역관가 출신 자제들은 해외 유학 등을 단행했고, 이들이 독립협회 등의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가로 범주를 확대했다.

이 소장은 “채국정책 속에서 유일하게 세계로 열린 창이었던 역관들이 개화 선각자가 되고, 신문물을 습득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며 “조선 제일의 갑부이면서도 자신들의 치부에만 열을 올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았던 선각자로 역관이 기억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세계화의 ‘내용’이 문제일뿐 세계화 추세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과거 역관들처럼 세계화를 통해 우리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유익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 ‘우리 선조의 대륙성과 해양성 밝히고파’

이덕일 소장은 최근 출판가에서 많은 역사서들이 선보이는 것에 대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했다.

“더 많은 역사서들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결국 저자들도 선의의 경쟁을 하고, 우리 사회가 역사를 보는 시각을 더 넓힐 수 있으니까요.”

번역상의 오류나 부분 번역으로 논지 자체를 옳게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이 소장은 “독자들에게 의해 걸러질 것”이라고 간단히 해법을 내놓았다. 우리 독자들의 수준을 믿는다는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그는 독자들에게 “우리 독자들이 역사서에 너무 많은 해답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저 하나의 사례일 뿐 해답은 없다”면서 “한쪽 가치를 대변하기보다 시대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역사서를 고르는 안목을 갖출 것”을 훈수했다.

이 소장이 지난 10년 가까이 역사 저술에 천착한 이유는 ‘한국 사회의 대륙성과 해양성’을 밝히기 위해서다. 만주 대륙을 품었던 우리 선조들, 그보다 넓은 땅을 경영했던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 사대사상과 일제 강점기 식민사관을 거치면서 애국가에 등장하는 ‘삼천리’ 만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의 삶을 조명했다면 이제는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대륙성과 해양성을 밝히는데 주력해야죠. 그렇다고 우리 선조들의 삶을 밝히는 작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작업 속에서 개론과 각론을 동시에 끄집어내도록 더 연구에 몰두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아침 일찍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 출근해 저녁까지 책상머리에 앉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다. 그런 뒷모습은 ‘욕지미래 선찰이언(欲知未來 先察已然, 미래를 알고 싶으면 먼저 지난 일을 살펴보라)’이라는 명신보감의 덕목을 실천하듯, 엄숙하기까지 하다. ■

취재\_장동석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